중세 주택의 개구부 형식에 관한 연구 - 통일신라 및 고려시대 주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Form of Window and Door of the Medieval Times House - Focused on the House of Unified Silla and Goryeo Period -

이정미*
Lee, Jeong-Mee

Abstract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form of window and door of medieval times house which are no longer in existence, by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literature materials and architectural remains of united Silla and Goryeo period. Particularly the window and door form change process of was analyzed, in connection with the change of term which are recorded in literature material. The form and the composition of window and door are the elements which determine the elevation design of architecture and concerned with interior environment. Therefore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e sense that it could be used as base data for the study on the reconstruction and interior space of medieval times house. There were ho (戶) and moon (門) as door, and chang (窓) for lighting and ventilation as window. Among these, the window can be divided into fixed and openable. There were two kind of fixed window. One is called chang (窓), and it was covered by silk or paper for lighting. The other is called ham (檻), it was the form of vertical bar window and lighting and ventilation was available. And there were two kind of openable window. One is called ho (戶), which had wooden plate window leaves. And the other is called changho (窓戶), lighting was available in the condition of closing.

Keywords : Medieval Times House, Opening, Moon (門, Double swing door), Ho (戶, Single swing door), Window

주요어 : 중세 주택, 개구부, 문, 호, 창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문과 창은 건물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개구부의 형식으로 문은 출입을 위한 시설이며, 창은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시설이다. 그러나 옛 문헌을 보면 출입시설로는 문 이외에도 戶가 있었는데, 說文解字¹⁾에는 門은 대문과 같은 영역을 위한 출입문으로, 戶는 건축물의 출입시설로 기록되어 있으며, 집의 정상부분에 열려있는 것은 窓으로, 담장에 있는 것은 牖로 해석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개구부는 기능뿐만 아니라 구성형식 및 위치에 따라 각각의 명칭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의 옛 문헌에서도 說文의 해석과 같은 의미인 門과 戶, 窓과 牖에 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으나, 점차로 戶와 牖라는 용어는 찾아보기 어려워지고, 門, 窓門 혹은 窓戶라는 새로운 용어로 정착하게 되었다. 그러나 어떠한 의미로 건축물의 출입구인 戶가 門으로 통합되었으며, 창문 혹은 창호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는가에 관하여는 아직까지 알려진 바가 없다.

신진국의 건축문화는 건축용어와 함께 수입되며, 자국의 건축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을 거쳐 새로운 건축문화와 용어로 변화하게 된다. 따라서 건축용어는 건축형식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용어의 해석은 유구가 없는 고대 및 중세의 건축형식을 엿볼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기도 한다. 동일한 한자문화권으로 목조가구식구조의 건축형식을 가지고 있는 일본의 경우 창과 문의 어원으로 說文의 기록을 따르고 있으나, 창문²⁾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일본의 전통건축에는 여닫이 형식의 창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것은 건축용어가 건축형식과 밀접한 상관성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국의 주택건축사 연구는 대부분 현존하는 상류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조선전기를 비롯한 고대 및 중세 주택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형편이다. 그러나 중세의 문헌자료에는 당시의 주택문화가 기록되어 있으며, 이에 관한 해석은 유구가 없는 중세주택 연구의 가능성을 제공한다.

*정회원(주저자, 교신저자), 중부대학교 공과대학 건축디자인학과, 조교수, 공학박사

Corresponding Author: Jeong-Mee Lee, Dept. of Architectural Design, Joongbu Univ., 201, Daehak-ro, Chubu-myeon, Geumsan-gun, Chungnam, Korea. E-mail: hljmee@joongbu.ac.kr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Basic Science Research Program through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 fund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No. 2012R1A1A3013926)

본 연구는 건축용어 가운데 특히 개구부에 주목하여, 통일신라 및 고려시대 주택의 개구부 형식을 분석하고자 한다. 개구부의 형식 및 배치는 건축의 입면디자인을 결정하는 요소가 될 뿐만 아니라 실내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중세주택의 복원 및 실내공간에 관한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중세주택의 복원에 관한 기초연구로 통일신라 및 고려시대를 시간적 범위로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문, 창, 호 등이 한국, 중국, 일본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에 관하여 사전적 의미를 파악하며, 삼국 및 통일신라시대의 문헌사료인 三國史記, 三國遺事 및 고려시대의 문헌사료인 東文選, 高麗史, 高麗史節要 등에 기록된 개구부와 관련된 기사를 선집하여 개구부의 형식 및 위치 등을 해석하였다. 또한 시대의 흐름에 따른 용어의 의미변화에 주목하였으며, 통일신라시대의 건축유구 및 황룡사지 동편의 신라왕경 발굴유구, 현존하는 고려시대 건축물 및 탑 등에 나타난 개구부의 형식 등 건축사료와의 비교검토를 진행하였다.

II. 門 · 窓 · 戶의 사전적 의미

건축물에 구성되는 개구부는 門과 窓으로 대별되며, 문이 출입을 위한 시설이라면 窓은 채광과 환기를 통하여 내부공간이 기능에 적합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시설이다. 옛 문헌에는 이외에도 출입과 채광, 환기 모두와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戶와 관련된 기록을 볼 수 있다.

說文에 따르면 戶는 半門을 이르는 상형문자로 옛문헌에서는 나무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戶로 기록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戶와 관련된 용어로는 扉, 扇, 房 등이 있다. 扉는 門과 戶를 구성하는 문짝을 가리키며, 扇은 대나 등으로 만든 사립문을 의미한다. 벽체로 한정된 공간을 이르는 말인 房은 반드시 戶가 있어야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즉, 戶는 半門의 형식으로 건축물의 출입을 위한 시설이며, 이에 비해 門은 영역간의 출입을 위한 시설물이다.

說文에서 窓은 牖³⁾와 비교하여 해석되는데, 담장(牆)에 있는 것은 牖로 집의 정상부분 즉, 높은 곳에 열려있는 것은 窓으로 설명하고 있다. 창과 유는 모두 나무로 만드는데, 수직 수평으로 교차하도록 살을 짜서 만든다. 따라서 창은 통풍 및 채광용이며, 사람이 출입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과 일본의 사전류에서 窓, 門, 戶에 관한 해석은 說文을 기본으로 하며, 이를 바탕으로 중국과 일본에서 근세에 편찬된 백과사전류인 古辭辨⁴⁾과 古事類苑⁵⁾에서는 자국의 다양한 문헌을 토대로 건축용어를 해석하고 있다. 古辭辨에는 고대의 방에는 하나의 문과 하나의 창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남쪽으로 열려있으며, 문은 戶이고 창은 牖라 한다는 것과, 老子를 인용하여 室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戶와 牖가 구성되어야 하는데, 현대에는 건축물의 출입과 영역간의 출입시설을 모두 門이라 하지만, 예전에는 이에 관한 구분이 있었음⁶⁾을 설명하고 있다. 이에 비해 古事類苑⁷⁾은 說文의 범주에서 門, 戶, 窓를 해석하고 있다. 다만 窓은 창살이 고정되어 있는 형식인 櫺과 동의어임을 밝히고 있는데, 이는 창이 개폐할 수 없는 고정식임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 본바와 같이 窓은 채광이나 환기를 위한 개구부로 개폐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戶는 건물에 달린 외쪽여닫이문을 지칭하고, 門은 영역간의 출입을 위한 양쪽여닫이로, 門과 戶는 모두 출입을 위한 시설이다. 그러나 현대에는 창호 또는 창문이라는 용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를 창과 호 즉 환기와 채광을 위한 창과 출입시설⁸⁾인 문을 동시에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하는가에 관하여는 옛문헌을 중심으로 사례를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4) 王鳳障 (1993). 吉林文史出版社.

5) 메이지정부에 의해 편찬된 백과사전. 메이지29-다이쇼3년(1896-1914)에 간행됨. 고대로부터 1867년까지의 다양한 문헌에서 인용된 예문을 분야별로 변찬하여 일본사 연구의 기초자료가 되고 있다.

6) 古代的住房一般是一門一窓, 門和窓一般都朝南開, 門叫做“戶”, 窓叫做“牖”, 如:[老子] “鑿戶牖以爲室”

現代房間, 庭院中可以開合的, 供出入的設備叫“門”不叫“戶”了; 在古代, 它們有的稱“門”, 有的稱“戶”. “門”和“戶”是有分工的; [一切經音義, 十四] “一扇曰戶, 兩扇曰門”; 又說 “在于堂屋曰戶, 在于宅區域曰門”. 這兩種解釋是一致的, 因爲設置在房屋內部的門一般是單扇的, 設置在宅院的, 或者範圍更大的區域的門, 如 “里門”, “城門”, 一般是雙扇的.

7) 居處部18, 戶;

[倭名類聚抄10 門戶] 戶 野王案, 在城郭曰門, 在屋堂曰戶.

[箋注倭名類聚抄3 門戶] 今本玉篇門部, 作在堂房曰戶, 在區域曰門

[倭名類聚抄10 門戶] 窓 說文云, 在屋曰窓, 在牆曰牖, 兼名苑云, 一名櫺 8) “扉”和“門”, “戶”不同, 它指的是門扇, 『說文』 “扉, 戶扇也”. “門”和“戶”指可以開合, 供出入的設施, “扉”是構成“門”或“戶”的部件…現代的“窓戶”, 不是“窓”和“戶”的意思, 它是“窓扉”, “窓扇”的意思.(古辭辨)

위와 같이 『古辭辨』에서는 문과 호는 모두 출입시설로 扉는 문이나 호를 만드는 문짝을 의미하므로, 현대의 窓戶라는 단어는 窓과 戶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窓扉 즉, 창문짝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窓戶는 방에 빛과 공기를 받아들이고 밖을 내다보기 위한 窓과, 방으로 드나들기 위한 외쪽 지게문 戶를 모두 지칭하는 것으로 통용되고 있다(Ju, N. (2001). Korean Gate, Door and Window. Seoul: Deawonsa. p. 10).

1) 中華民國 (1976). 說文解字. 天工書局印行.

2) 일본의 사전류에 窓門이라는 단어는 수록되어 있지 않으며 大漢和辭典에서는 窓戶는 창과 戶를 뜻하며, 戶는 실의 출입구로 해석하고 있다(窓戶: まどと戸. 戶は室の出入口).

3) 說文에 牖는 벽을 뚫어서 나무로 만든 교창으로 해석되어 있다.

III. 통일신라시대 주택 개구부의 형식

1. 窓・戶의 형식

삼국 및 통일신라시대의 생활상을 고찰할 수 있는 三國史記 및 三國遺事에서 窓과 戶, 門에 관한 기록은 說文의 해석에 준하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門의 경우 玉門, 宮門, 正門 등과 같이 영역간의 경계에 시설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이에 관한 사례는 제외하였으며, 그 외의 門, 窓, 戶에 관한 문헌을 분석하였다.

- 1) 玄菟·樂浪, 本朝鮮之地, 箕子所封. 箕子教其民, 以禮義·田蠶·織作, 設禁八條. 是以其民不相盜, 無門戶之閉, 婦人貞信不淫, … (三國史記(22卷). 高句麗本紀 10, 寶藏王 27年)
- 2) 庚信既受命, 至懸鼓岑之岫寺, 齊戒即靈室, 閉戶獨坐, 焚香累日夜而後出. (三國史記(41卷). 列傳 1, 金庚信 3)
- 3) 初住北部修德寺, 有衆則講, 無則持誦, 四遠欽風, 戶外之履滿矣. (三國遺事(5卷). 避隱 8, 惠現求靜)
- 4) 一日, 日影拖紅, 松陰靜暮, 窓外有聲, …, 但每夜端身正坐, 一聲念阿彌陀佛號, 或作十六觀, 觀既熟, 明月入戶, 時昇其光, 加趺於上, … (三國遺事(5卷). 感通 7, 廣德 嚴莊 1)
- 5) 戊寅二月十五日, 夜夢, 昔所見沙彌到窓下曰(三國遺事(3卷). 塔像, 4 洛山二大聖 觀音 正趣 調信)

1)은 잘 알려진 바와같이 고구려의 8조법금에 관한 내용이다. 8조법금의 시행으로 백성들이 서로 도둑질하지 않고 門戶를 닫지 않았다는 것인데, 여기서 門戶는 주택의 영역을 한정하는 대문과 건물에 시설된 戶를 함께 일컫는 것으로 생각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三國史記』 「屋舍」條에는 신분에 따른 문의 형식을 규제하고 있으며, 다음의 기사를 통해 당시 상류주택의 영역구성과 함께 門의 형식을 엿볼 수 있다.

初, 舒玄路見葛文王立宗之子肅訖宗之女萬明, 心悅而目挑之, 不待媒妁而合. 舒玄爲萬弩郡太守, 將與俱行, 肅訖宗始知女子與玄野合, 疾之囚於別第, 使人守之. 忽雷震屋門, 守者驚亂, 萬明從竇而出, 遂與舒玄赴萬弩郡. (三國史記(41卷). 列傳 1, 金庚信 3)

김유신의 아버지 서현과 숙흥종의 딸인 만명이 부모의 허락없이 만나자, 숙흥종이 만명을 別第에 가두었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第는 家와 함께 영역으로서의 주택을 의미하는 단어로 한 채의 건물로 보기 어려우며, 이후 갑자기 벼락이 屋門을 때리고 지키던 사람들이 놀라 정신이 없는 틈을 타 만명이 구멍으로 빠져나가 서현과 함께 만노군으로 달아났다는 것을 보아, 여기서 屋門은 別第영역의 출입시설로 판단된다.

같은 편의 기사인 2)는 유신이 명을 받고 懸鼓岑의 절에 가서 재계하였다는 내용이다. 유신은 靈室에 들어가 戶를 닫고 홀로 앉아 분향하였다고 하는데, 여기서 戶는 靈室의 출입을 위한 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기사들은 說文의 門과 戶의 해석과 일치하는 대

목으로,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3)의 백제승 혜현이 수덕사에 머물면서 강론하고 경을 외니, 사방 먼 곳에서 교화를 흠모하여 문(戶) 밖에 신발이 가득하였다는 기사는 금당 혹은 강당의 문밖에 신발이 가득한 모습을 기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4)는 문무왕(626~681) 대의 승려 광덕과 엄장에 관한 기록으로, 엄장의 암자 窓밖에서 광덕이 이야기하는 장면과 광덕의 집에서 엄장이 수행하는 내용이다. 여기서 밝은 달이 戶로 들어온다는 기록은 戶를 출입을 위한 시설로 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의 여지를 준다. 그러나 중국 漢代(BC202~AD220)의 서적 淮南子에는 “열 개의 창(牖)을 다 열어도 戶 하나의 밝기가 못하며, 틈으로 빛이 들면 한 모퉁이만 비추고, 창(牖)으로 빛이 들면 북쪽 벽을 비추며, 戶로 빛을 받으면 실내의 모든 곳을 두루 비춘다”⁹⁾는 기록이 있는데, 이는 당시 실내의 채광은 주로 출입문인 戶로 해결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三國史記와 三國遺事에는 牖에 관한 기록은 볼 수 없으며, 窓에 관한 기사도 채광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소리에 관련된 세 개의 용례에 불과하다. 따라서 광덕의 집 戶는 다른 기사들에서 해석되는 바와 같이 출입문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당시의 戶는 중국에서와 같이 출입시설이자 바닥까지 닿는 창(窓)의 역할도 하는 개구부의 형식이라 할 수 있다.

용례 5)는 원효대사가 847년 굴산사를 짓고 불교를 전파하던 중 당나라에서 만난 승려의 꿈을 꾸는 장면으로 꿈에 전에 보았던 승려가 창 아래로 와서 말하였다는 기록이다. 용례 4), 5)를 보면 窓은 소리의 차단성이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2. 門의 형식

전술한 바와 같이 三國史記, 三國遺事에서 門은 행랑 또는 담장과 연결되는 건물로 南門, 西門 등과 같은 영역의 경계에 건립되는 건물을 의미한다. 9C에 반포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주택법규인 「屋舍」條에서도 실내가구(床) 및 簾, 屏 등의 재료를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물의 외부형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개구부의 장식에 관한 규제는 볼 수 없으며, 大門, 四方門, 重門 등 영역간의 경계에 구성하는 건축물로써 門의 위치 및 형식 등에 관한 규제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삼국 및 통일신라시대의 문헌사료에서 門과 戶는 說文의 해석과 일치하는 용례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황룡사지 동편에서 발굴된 신라왕경유구¹⁰⁾ 가운데 제2가옥의 중심건물로 추정되는 건물지에서는 통일신라시대 및 고려시대 사찰의 금당에서 나타나는 것과 동일한 형식의 신방목 초석유구를 볼 수 있다.

9) 李允鉾(2000). 중국고전건축의 원리(이상해 외 3인 역). 서울: 시공사. p. 299.

“十牖畢開不若一戶之明”… “受光於隙照一隅, 受光於牖照北壁, 受光於戶照室中無遺物”

Figure 1. Main Building Site of Second House in Capital of Silla

주지하는 바와 같이 신방목은 문설주를 지지하는 받침목으로 판문형식의 출입문을 지지한다. 부엌이나 창고 등에 시설되는 소형의 판문은 일반적으로 상하부의 둔테에 고정되는 형식으로, 기원전 1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광주 신창동 저습지출토 나무문짝¹¹⁾에서 알 수 있듯이 오랜 역사를 갖는 개구부의 형식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통판문은 건축연장이 발달하면서, 판을 얇게 만들어 여러 쪽을 띠장목에 의해 연결시켜 만든 널판문으로 변화하였으며, 현존하는 조선시대 건축을 보면 보온을 필요로 하지 않는 대문이나 중문 및 부엌문 등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신라왕경 황룡사지 동편지구에서 발굴된 18가옥 가운데, 신방목의 초석으로 추정되는 유구가 발견된 가옥은 제2가옥의 중심건물뿐이며, 다수의 가옥에서 발굴된 대문유구에서도 신방목과 관련된 유구는 볼 수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신라왕경의 제2차조영시기인 9세기경 상류주택 중심건물(室)에 출입문으로 신방목이 있는 대문형식의 판문을 사용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신방목으로 지지되는 판문은 둔테로 지지되는 판문에 비해 큰 문을 설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제된 입면으로 정면성을 강조할 수 있으므로, 주로 통일신라 및 고려시대 사찰의 금당에서 신방석이 발굴되었다(Figure 2).

따라서 신라왕경유구의 중심건물에서 신방석이 나타났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를 통하여 통일신라시대 상류주택 중심건물의 출입구도 중세사찰의 금당 출입문과 동일한 형식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러한 형식의 출입문이 건물에 시설되기 시작하면서, 門의 의미가 건물의 출입구를 포함하는 의미로 확대되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10) 신라왕경 황룡사지 동편 S1E1지구 유적은 1987년부터 2002년까지 십여년에 걸쳐 본격적인 발굴이 진행되었으며, 이 지역은 외곽에 井자형으로 설치된 도로에 의해 구획되어 있는 신라왕경의 최소생활 단위 공간(坊)으로 알려져 있다(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2002) 신라왕경-발굴조사보고서-)

11) Cheon, D., & Shin, S. (2006). A Study on the Door Discovered at the Shinchang-dong Wetland Site. *Journal of Architectural History*, 15(5), p. 15

신창동 나무문짝과 함께 5세기 유적으로 추정되는 김해 봉황동 유적의 나무문짝은 모두 통판문형식으로 튼튼하지만 무겁다는 단점이 있다. 두문짝 모두 폭 50 cm 미만이며, 길이는 100 cm 미만으로, 이러한 문짝들이 건물의 출입문으로 사용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Figure 2. Main Hall of Youngamsaji Site (9th)

있다. 그러므로 『三國史記』, 『三國遺事』에서는 건물의 출입문으로 해석되는 門의 용례를 볼 수 없으나, 고려시대 관련 문헌자료에서는 이와 관련된 다수의 기록을 볼 수 있다.

IV. 고려시대 주택 개구부의 형식

1. 窓의 형식

고려시대의 생활상을 고찰할 수 있는 문헌은 이전시기에 비하면 많은 수량이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단편적인 상황에 관련된 기록으로, 문헌을 통하여 건축의 형태를 분석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 고려시대 문헌의 개구부와 관련된 기록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창으로 해석되는 檻에 관한 부분이다.

- 6) …蟾吐素光窓有暈, 龍嘯白氣井無冰, … 倚檻共吟穿戶月, 問山同過鎖溪冰, … 寂寞如今學老僧, 繁華曾閱馬行燈, … (東國李相國集(11卷). 古律詩, 文長老見和多至 9首)

6)은 보제사 西堂에서 읊은 시로 窓, 檻, 戶에 관한 내용을 볼 수 있다. “환한 달빛 비추니 창에 달무리 어렸고”라는 대목과 함께 檻에 기대어 戶를 뚫고 들어오는 달빛을 같이 읊었다는 것으로 보아, 檻이 창과 관련된 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대부분의 번역서에서 檻은 난간으로 해석되고 있으나, 위의 기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檻이 건물외부에 구성되는 난간이라면, 檻에 기대어 戶를 뚫고 들어오는 달빛을 노래하는 것은 공간 구성상 불가능한 일이다.

檻¹²⁾은 사전적으로 좌인을 가두는 우리라는 의미를 갖지만, 문헌에서는 窓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많은 사례를 볼 수 있으며, 탑 등의 고대건축 사료에서 볼 수 있는 살창의 형식으로 짐작된다.

- 7) …幽枕一燈青地落, 夢酣空檻半垂簾 (東國李相國集(3卷). 古律詩, 天壽寺偶書廻文 2首)
8) …避風羸僕投巖下, 厭雪飢落檻中… (東國李相國集(9卷). 古律詩, 扶寧客舍 次板上李祭酒純佑詩韻)

- 9) …東風欺人睡, 吹起床上衣, 覺來寂無事, 林外射落暉, 倚檻欲嘆息… (東文選(4卷). 五言古詩, 雜興 九首, 崔惟清)

7)을 보면 베갯머리 등잔불 푸른 불뚝 떨어지고 空檻에簾이 반쯤 내려져 있다거나, 8)의 눈을 싫어하는 굵은 새가 檻中에 있다는 것은 창에 갇혀있는 새의 모습을 묘사한 것이다. 9)에서는 평상이 놓여져 있는 室의 窓으로 저녁별이 비치는 모습으로 崔惟清(1095~1174)의 거처를 묘사한 기사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용례6)의 보제사 西堂은 달무리 어린 窓과 살창 형식의 檻 그리고 戶로 구성된 실내공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戶가 이전시기의 출입문을 의미하는가에 관하여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다음 장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窓은 환한 달빛이 비친다거나 외부의 소리가 들리는 등, 주로 실내공간에서 느끼는 빛, 밝음 등의 채광과 관련되어 기록되어 있으며, 위치상으로는 南窓에 관한 기사를 가장 많이 볼 수 있다.

- 10) …十月天寒雪盈尺, 南窓負日暖於春, 渾家歡笑有生意… (東國李相國全集(9卷). 古律詩, 走筆賀高先生宅成. 兼敘廉察命 構之意.)
11) 買斷煙林理小園, 南窓睡起負朝暄, 白頭不悔儒冠誤, 尙把塵編教子孫(東文選(20卷). 七言絕句, 偶吟, 李仁老)
12) 南窓兀坐靜無塵, 炙背溫溫味自眞, 直欲獻君開化日, 旋將和氣與民春(東文選(22卷). 七言絕句, 炙背, 許錦)

위의 시문에서 보는바와 같이 南窓은 햇살, 아침별, 따사름 등의 내용이 덧붙여져 있어, 실내공간에서 南窓의 기능을 알 수 있다. 그러나 南窓과 관련된 많은 시문에서 窓 통해 보이는 경관의 묘사라든가, 환기와 관련된 내용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窓은 채광이 가능하지만 개폐할 수 없는 구조인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은 고려시대 주택의 창이 비단이나 종이 등으로 마감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 13) 獨直偏知殿閣涼, 金蓮花燭照華堂, 露凝仙掌驚秋冷, 月透紗窓信夜長, 七寶床前宮漏永(東國李相國文集年譜)
14) …晴日欲迷深院落, 春波不動小池塘, 飄來鈿砌輕無影, 吹入紗窓細有香, 半隨紅雨撲空床(東文選(15卷). 七言律詩, 楊花, 李齊賢)
15) 身惹爐香青鎖闌, 夢迷燈火碧紗窓, 退朝丹鳳天臨闕(牧隱詩藁(10卷). 詩, 康東亭冒雪携酒見訪)
16) …兒正呼寒憶在家, 生活百年多冷淡, 紙窓呵筆字橫斜(稼亭先生文集(17卷). 古律詩, 初寒)

12) 중국건축에서는 檻의 의미가 비교적 넓어서 창 아래의 벽을 말하거나 구조부분인 프레임을 표시한다. 청대에 이르르면 모든 기둥 사이의 문열골을 檻樑이라고 하였다. 환공에는 문과 창을 달 수 있고 實板을 끼워 넣을 수 있는데 이는 설계요구에 따라 결정된다(李允鉾(2000). 중국고전건축의 원리(이상해 외 3인 역). 서울: 시공사. p. 296.) 반면, 일본건축에서 檻은 說文의 해석에 따라 창살 있는 창 의미인 欄과 동의어로 해석하며, 각주7)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欄은 곧 窓으로 규정하고 있다(古事類苑, 大漢和辭典).

- 17) 雪色紙窓紅日燭, 萬帙標編宜可讀, 白面學子魚聚族, 橫經鼓篋此爲塾(東國李相國全集(1卷). 古律詩 36首, 題晉秀才別墅 聚冠童隸肄業)
18) 暮還寄旅舍, 擁葛對青缸, 清坐愁不寐, 風雪打紙窓(東國李相國全集(7卷). 古律詩, 十月二日. 憶舊遊)
19) 文章向老可相娛, 一劍遊邊尙五車, 衙罷不知爲塞吏, 紙窓明處臥看書(東文選(19卷). 七言絕句, 漫成, 金克己)

방한과 함께 채광을 목적으로 창에 종이를 바르는 것은 종이의 상용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日本書紀¹³⁾에는 고구려의 승려 담징이 625년 종이, 먹, 땃돌을 전파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며, 正倉院에서 발견된 新羅帳籍은 종이에 기록된 8세기 촌락문서로 삼국 및 통일신라 시대에 우리나라는 고급제지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경덕왕(?~765)대의 목간이 안압지에서 발견된 사실에 유의하면, 8세기 중반까지도 종이의 사용은 보편화되지 않았다¹⁴⁾고 볼 수 있다. 三國史記 屋舍條에서도 室에 구성되는 개구부 窓 혹은 戶, 門 등에 관한 규제는 볼 수 없으며, 내부공간의 가구 등에 관한 규제에서 簾, 屏 등에 사용되는 다양한 종류의 직물이 나열되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9C의 창에 마감되는 재료로는 종이보다 직물류가 일반적이었을 것으로 사료되며, 창을 마감할 경우에도 簾, 屏에 사용되는 직물이 사용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후 앞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東國李相國集의 저자(李奎報: 1168~1241)가 활동하였던 시기에 紗窓과 紙窓이 보편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戶의 형식

고려시대 문헌에서도 戶는 건물의 출입문을 의미하는 많은 기록을 볼 수 있다. 그러나 高麗史에는 고려시대의 戶가 출입문으로서의 의미가 아닌, 개폐가 가능한 창으로 볼 수 있는 기록을 찾을 수 있으며, 본 장에서는 창으로 해석되는 戶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風師壇高三尺廣二十三步四出陞燎壇在內壇之外二十步丙地廣五尺戶方二尺開上南出在國城東北令昌門外. (高麗史(63卷). 志, 17卷, 禮5)

바람의 신 風師에게 제사지내기 위한 시설인 풍사단의 건축제도 중 燎壇에는 사방 2尺의 위로 여는 戶가 있다는 기록을 볼 수 있다. 2尺 크기의 戶를 출입문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風師壇을 비롯한 雨師壇, 雷神壇은 동일한 건축제도로 정종(靖宗) 5년(1039) 5월 정월 신축일 우사(雨師)에게 제사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므로, 적어도 11C초에 戶는 개폐가 가능한 외작의 문 또는 들창의 개념으로 통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13) 推古「十八年春三月 高麗王貢上僧 曇徽 法定 曇徽知五經 且能作彩色及紙墨 并造碾磑 蓋造碾磑 始於是時歟」(日本書紀)
14) 이인철 (2009). 한국 고·중세 사회경제사 연구. 백산자료원. 2009. p. 88

- 20) …夢酣不覺打窓宵，但知地上高低積，休問空中巨細飄，
掩戶初聞聲屑屑，卷簾方見色瀟瀟…(東國李相國後集
(8卷). 古律詩, 57首)

20)에서는 밤새 눈이 내린 것을 戶를 닫을 때는 사뿐 거리는 소리로 듣고 발을 걷어 비로소 확인했다는 내용이다. 戶가 일반적인 지게문이라면 문을 닫고 발을 걷는다는 것은 그 순차적 행위에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으며, 열려있던 문을 닫으면서도 눈이 온 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발을 걷고서야 확인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다. 또한 여러 문헌에서 발[簾]이 달리는 위치는 대부분 窓으로 기록¹⁵⁾되어 있으므로, 20)에서 표현하고 있는 공간구조도 창앞에 발이 드리워진 실내공간으로 보인다. 발이 드리워진 창으로는 눈이 오는 것을 보지 못했으며, 다소 높이 달려있는 戶를 닫으면서도 소리만 들었을 뿐 눈을 확인하지 못하고 창에 처진 발[簾]을 걷으면서 비로소 눈이 온 것을 확인했다는 기록이다. 또한 개폐가 가능한 戶의 위치는 대부분 北戶로 기록되어 있다.

- 21) …盛暑方蒸，北戶洞開，清風颯來，深閣自陰，日光不窺，環以寒水，交以大簾，申之以青松翠柏，供美蔭送清籟，淒涼如八九月天，不知人間有流金鑠石之炎也，此予之有得於夏也。(東國李相國全集(24卷). 記，崔承制十字閣記)
- 22) 置琴當北戶，風過自然鳴，暗向靜中聽，依稀天樂聲
(東國李相國後集(4卷). 古律詩 98首，加耶琴因風自鳴)

21)은 흰하게 열린 北戶를 통하여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므로 여름철 찌는 듯한 더위를 식혀주며,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기록이며, 22)는 가야금을 北戶앞에 두었더니 바람이 저절로 소리를 낸다는 기록이다. 戶가 출입을 위한 시설이라면, 사람이 통행하는 입구에 가야금을 둔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어긋나는 일이므로, 北戶는 북쪽으로 난 개폐가 가능한 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여름철 내부공간으로 시원한 바람을 유입하여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는 北戶는 겨울이 되면, 그만큼 내부공간의 난방에는 역기능을 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겨울이 되면 北戶에 바람이 통하지 않도록 막았다는 기록을 볼 수 있다.

- 23) …窮冬堪北戶，意欲防風雪，尙能知傲寒，鷹犬出遊獵
(東文選(4卷). 五言古詩，田家四時，金克己)
- 24) …白團久罷休，北戶將坏塞，豈意八月後，更遭炎暑逼
(容齋集(7卷). 海島錄，熱)

23)에는 한겨울에 바람과 눈을 막고싶어서, 北戶에 흙매질을 한다는 것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으며, 24)에서도 8월이 지나 北戶를 막았는데, 다시 더위가 찾아왔다는 내

용으로, 여름이 지나 9월이면 되면 北戶를 막는 것이 보편적인 일이었음을 엿볼 수 있다. 개폐가 가능한 窓인 戶의 형식이 전술한 高麗史의 기록에서와 같이 위로 여는 형식의 벼락닫이 창인지, 여닫이창인지는 알 수 없으나, 동절기 흙매질로 戶를 막는다는 것으로부터 戶가 판문형식이었을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 현존하는 고려시대 건물인 <Figure 3>의 부석사 무량수전과 수덕사 대웅전의 배면에는 둔테에 고정된 판문이 달려있다. 규모의 차이는 있겠으나, 고려시대 상류주택의 실내공간에 시설된 北戶의 형태를 추정할 수 있다. 부석사의 경우 판문이 내부에 시설되어 있으나, 판문이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수덕사와 함께 <Figure 4>에서 보는바와 같이 조선시대 주택에서 창호지로 마감된 창외부에 판문형식의 쌍여닫이가 시설되어 있는 형식으로 볼 수도 있다. 판문이 외부에 시설되면, 동절기의 밀폐가 더욱 용이하였을 것이다.

Figure 3. Window of Back Wall in Muryangsujeon, Buseoksa

a) Gwangjaeong

b) Indongjangsi-ga

Figure 4. Windows of Joseon Period House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窓으로 기록된 문헌사례의 경우, 窓의 개폐에 관한 용례를 찾아 볼 수 없으며, 개폐되는 형식의 창인 경우 戶로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窓戶의 경우 25), 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폐와 관련된 내용이 함께 기록되므로, 종이 혹은 비단 등으로 마감되어 고정된 窓에 대해 개폐가 가능한 형식의 창을 窓戶로 기록하여, 窓과 窓戶의 의미를 구분하는 것으로 보인다.

- 25) 曉寒窓戶欲開遲，日已高春坐更危，幸是無人敗吾興，舊詩改了又新詩 (牧隱詩藁(15卷). 詩，卽事)
- 26) 雨止窓初白，雲濃山轉青，殘年深閉戶，清曉獨行庭…吾廬閉窓戶，相府開門庭(牧隱詩藁(26卷). 詩，晨興)

15) …簾捲半窓閑榻靜…(東國李相國全集(16卷). 古律詩，俞公見和訪來，因置酒復答)
…碧樹低窓露滴簾…(東國李相國全集(2卷). 古律詩，訪足庵庵首座)
…誰家簾幕開晴窓…(續東文選(4卷). 七言古詩，題安堅山水圖冬景)

25)에서는 추운새벽 창호를 늦게 열고자, 해가 높게 떴을 때까지 꿰어 앉아있었다는 것으로, 여기서는 창호와 호 각각을 의미하기보다 개폐가 가능한 형식의窓을 지칭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같은 문집에 수록된 시문인 26)에서는 비가 그치고 밝아지는窓의 모습과 창문이 닫혀있는 것을 함께 기록하므로, 당시窓과窓戶의 기능 및 형식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a) Maengsihengdan house b) front windows of Muryangsujeon, Buseoksa

Figure 5. Windows Form of Goryeo Period

이때窓戶의 형식은 <Figure 3>과 <Figure 4>의窓戶와 같이 고정식 살창에 덧붙여진 판문의 형식일 가능성과 고려시대 주택으로 알려져 있는 맹씨행단 및 부석사와 수덕사의 전면창호와 같이 설주를 세우고 각각의 창이 들어열개의 형식으로 구성되는窓戶 형식일 가능성을 함께 생각할 수 있다.

3. 門의 형식

주요건물의 출입문이 어느 시기부터 신방목이나 둔테 등이 없이 철물에 의해 지지되는 형식으로 변화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아직까지 연구된 바가 없다. <Figure 6>은 고려시대 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용수전각무늬 거울로 12~13세기 건축의 형식이 섬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전면 3칸의 중앙칸에 두 짝 널판문이 있으며, 좌우칸에는 빗살무늬 창이 여백없이 채워져 있다. 창이 크기로 보아 개폐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단정할 수는 없다. 한편 <Figure 7>의 고려 광종2(951)년 건립된 불일사 5층탑에서 발굴된 금동9층탑의 일층부분은 부석사 무량수전 및 수덕사 대웅전의 정면과 유사한 입면으로, 전면칸수는 명확하지 않으나 모두 정자살무늬의 창호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고려시대에는 판문형식의 출입문과 정자살문이 공존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현존하는 最古의 건축물인 봉정사 극락전 및 은해사 영산전 등에서도 신방목의 존재가 확인되므로 판문은 사찰뿐만 아니라 주택의 중심 건물에서도 보편적인 출입문의 형식 가운데 하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건축물의 출입문으로 대문형식의 쌍여닫이문이 시설되면서, 건물의 출입문은 戶가 아닌 門으로 통칭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때 보온성의 측면에 대한 고려가 중요한 문제점이 되었을 것이다.

Figure 6. Bronze Mirror of Goryeo Period (12~13th)¹⁶⁾

Figure 7. Gilt-bronze Nine-storeyed Miniature Pagoda (Bulilsa)¹⁷⁾

Figure 8. Door Detail of Youngsanjeon, Eunhaesa

- 27) …本是水鄉孫，蓬門不施箔，清節那一移…
(東國李相國全集(9卷). 古律詩，次韻趙亞卿 冲 見和 亞卿. 趙相國季嗣)
- 28) …弊席垂門一畝宮，獨吟高興有誰同，似聞清蹕南山下，龍首蔥蘢映碧空(牧隱詩藁(20卷). 詩，至午雪作)
- 29) 歲在庚申，時惟季冬，天氣凜冽，枯木號風，三峯子躡屐出門，四顧蒼茫…(東文選(3卷). 賦，梅川賦，鄭道傳)
- 30) 酒後身疲懶出門，南窓兩眼向昏昏，強拈秃筆情初放，忽見新詩語頗溫(牧隱詩藁(21卷). 詩，無分發)

위의 용례들은 고려시대 관련 문헌 가운데, 실내공간의 출입을 위한 문에 관련된 것이다. 27)에서 문에 발(箔)도 드리우지 못했단가, 28)의 문에 거적(弊席)을 늘어뜨렸다는 데서 門은 영역간의 분할을 위해 시설되는 門이 아니라 건축물에 시설된 문으로 방한을 위해 箔이나 弊席을 늘어뜨린 것으로 내부공간의 출입을 위한 문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29)에서 늦은 겨울 나막신을 신고 문을 나왔다는 것도, 대문을 나왔다는 의미로 해석되기보다, 신을 신고 건물 밖으로 나왔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사례31)에서도 술을 마신 뒤 피곤해서 문밖도 안나갔던 남쪽창이 어둡기만 하다는 것으로, 문과

16) 국립청주박물관 (2000). 국립청주박물관. p.11.

17)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IV-고려편 p. 245.

Table 1. Form of Window and Door

case	period	type	door (門)		window (窓)		door (戶)		window (窓戶)
			gate	door	fix	lattice (檻)	door	window	
1	Tree Kingdom Period	House	●					●	
2		Temple						●	
3		Temple						●	
4		House			●			●	
5	Unified Silla	Temple			●				
		House site		●					
		Temple site		●					
6	Goryeo	Temple			●	●	●		
7		House				●			
8		House				●			
9		House		●					
10		House		●					
12		House		●					
13		House		●					
14		House		●					
15		House		●					
16		House		●					
17		House		●					
18		House		●					
19		House		●					
20		House						●	
21		House						●	
22		House						●	
23		House						●	
24		House						●	
25		House							●
26		House							●
27		House		●					
28		House		●					
29		House		●					
30		House		●					

창으로 구성된 내부공간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적어도 통일신라 말, 9세기 이후의 상류주택에는 신방목이 필요한 큰 규모의 판문이 건물에 설치되었으며, 고려시대까지도 箔이나 弊席을 늘어뜨린 판문형식의 문이 건축물의 출입을 위한 시설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Table 1>은 지금까지 살펴본 중세주택 개구부형식의 변화를 시대별로 분류한 표이다. 동일한 건축용어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 그 의미가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V. 결 론

본 연구는 현존하는 중세관련 문헌사료를 중심으로, 통일신라시대의 주거지 및 고려시대 건축물과 건축관련 유

구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중세주택 개구부의 형식을 분석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세주택에서 건물의 출입을 위한 시설로는 戶와 門의 형식이 존재하였으며, 9C경에는 신방목으로 지지되는 門이 주택에서도 건물의 출입구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신방목이 있는 양여닫이문은 입면의 중심성을 확보하고 실내의 채광 및 환기에도 용이한 효율적인 역할을 하였다.

둘째,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은 크게 고정창과 개폐가 가능한 창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고정창의 형식으로는 비단 혹은 종이로 마감되어 채광이 가능한 窓과 채광 및 환기가 가능한 살창형식의 檻이 있었다. 그리고 개폐가 가능한 창에는 판재로 된 戶와 닫힌 상태로 채광이 가능한 窓戶로 분류할 수 있다.

셋째, 채광용 창은 주로 남측에, 환기용 戶는 주로 북측에 배치되었다. 南窓의 따뜻한 햇살과 北戶로 유입되는 시원한 바람으로 실내공간은 사계절 적절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으며, 동절기가 시작되는 음력9월에는 흙 등으로 北戶를 완전히 폐쇄하기도 하였다.

다섯째, 窓의 마감에 종이를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12세기의 상류주택에는 紗窓과 紙窓이 보편적으로 사용되었으며, 紙窓의 사용은 실내공간의 채광뿐만 아니라 방한의 효과를 더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비단 혹은 종이로 마감되어 채광은 물론 개폐가 가능한 窓戶의 발전은 고려시대 주택의 내부공간을 더욱 밝고, 따뜻한 공간으로 변화시켰을 것이다. 창호의 발달은 살창(檻)의 쇠퇴와 함께 방한에 큰 역할을 하였던 簾, 屏 등의 쓰임에도 변화를 주었을 것이다. 개구부의 형식은 건축의 외관 및 실내공간의 변화와 밀접한 상관성이 있다. 과학과 기술의 발달뿐만 아니라 실내공간의 변화에 대한 요구로 새로운 형식의 개구부가 모색되었을 것이다. 유구가 없는 중세건축의 복원을 위하여 건축세부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1. Cheon, D., & Shin, S. (2006). A Study on the Door Discovered at the Shinchang-dong Wetland Site. *Journal of Architectural History*, 15(5), 7-15.
2. Gaya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2005). *BongHwang Dong, Gimhae Changwon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s*. Changwon
3. Ju, N. (2001). *Korean Gate, Door and Window*. Seoul: Deawonsa.
4. Lee, J. (2010). A Syudy on the Urban Housing in Unified Silla Dynasty. *Joua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Planning & Design*, 26(5), 241-248.
5. Lee, J. (2011). A Study on the Sil in 「Oksa」 Chapter of 『Samguksagi』. *Joua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Planning & Design*, 27(4), 139-146.

접수일(2013. 9. 29)
게재확정일자(2013. 12. 10)